

# 綜合學術大會에 붙여...



趙完圭

〈서울대 自然大 교수〉

매해 外國에 거주하는 교포 科學·技術者를 불러들여서 外國 학자들과 같이 綜合學術大會를 펼치고 있다. 올해는 그 여덟번째가 되며 이번에는 歐洲지역의 학자들을 초청해서 4월 6일부터 16일까지 韓國科學技術院에서 행사를 갖기로 했다.

綜合學術大會의 목적은 『첫째, 國內의 과학기술자가 學術·技術의 정보를 교환하게 하고, 둘째, 재외 과학·기술인을 모국 학계 및 산업계와의 유대를 시킴으로써 그들의 전문적 지식이 相關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게하며 셋째, 재외과학기술자들로 하여금 조국의 교육·연구기관, 지역사회의 발전 그리고 산업의 실태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조국의 근대화산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제5차 學術大會이래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준비 또는 운영에 관여했던터라 그 사이에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하여 몇가지 提言을 하고자 한다. 이 제언이 대회의 목표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나날이 발전하는 國內의 學界 및 社會의 사정을 감안할 때 大會가 지향하는 목적을 보다 더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대회의 수행에 얼마간의 수정이 있어야 하겠다.

지난 일곱차례의 학술대회가 展示的 또는 걸치례의 행사로 시종되었다는 비판이 일부 識者간에 있었으며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진지한 고려가 있어야 하겠다. 즉 과거처럼 母國訪問이 일차적 목적이고 學術行事가 그 부차적인 것처럼 된다면 학술대회 자체가 지니는 본래의 목적은 크게 腿色하게 될 것이다.

7년전 재외과학기술인을 초빙해서 가졌던 첫번째 學術大會가 國內 학자의 외면속에 진행되었던 것도 당시의 대회를 준비했던 主體의 책임이었다기 보다는 우리 학계의 상황이 그들을 受容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않았고 또 학술적 행사가 主目標였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국방문의 주선이 보다 더 중요한 목표

였던 때문이라고 본다.

그 후 몇차례 學術大會를 겪으면서 대회의 참의의가 부각되기 시작했고 국내과학기술인의 관심이 漸高하게 되었다. 특히 學術大會의 운영을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가 주관하면서 부터 대형화된 대회를 훌륭히 소화하고 이를 수행해 낼 능력을 지니게 된 이 시점에서 綜合學術大會의 운영방법이 달라져야 할 것 같다.

그 변화의 하나는, 地域에 따라 번갈아가며 초청해서 대회를 가질 것이 아니라 세계에 퍼져있는 우리 동포科學·技術人과 국내학자들이 동시에 한자리에 모여서 名實相稱한 종합적인 학술대회가 되게 한다는 것이다. 그 실현이 당장 어렵더라도 그 가능성에 대한 追究이 있기를 바란다.

그 둘째는, 앞으로의 大會는 量을 염두에 두고 계획할 것이 아니라 質 관리에 보다 더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大會가 처음으로 열렸을 때의 사정과 현재의 것이 크게 다르며 이제는 국내학자들의 수준 뿐 아니라 大學院 학생의 학문적수준과 그 探究熱이 크게 신장되었고 發表論文 質의 우열을 쉽게 식별할 수 있으며 준비가 不實한 論文은 결코 그들의 의욕을 충족시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國內측에서는 이미 전부터 해당學會 또는 研究機關이 추천하는 論文을 발표시킴으로써 그 質을 높이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在外측의 논문가운데 간혹 수준이하의 것들이 섞여있다는 일반 참관자의 평이 있고 보면 그 眞否는 차치하고라도 서로 논문의 質 향상을 위해서 어떤 제도적장치가 있어야 한다.

셋째는, 國家的 需要와 필요성을 감안해서 매년 1~2개 特定分野 또는 課題를 정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준비와 支援이 있어야 한다.

대회가 대형화하면 자칫 祝祭의 분위기가 되고 學術情報의 교환, 學問발전의 기여등 대회의 궁극적 목적이 외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령 年前的의 대회 때 “自動車工業” 또는 “資源 및 에너지”등의 특별과제 선정이 그 예가 된다. 다만 課題의 선정이 빠른 시기에 이루어져서 발표자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特別課題의 主題발표 또는 論文發表者로 선정된 在外 科學·技術人에게는 여비등을 보조해 줌으로써 우리가 필요할 때 그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 다섯번째로는, 모국을 방문한 科學·技術人들이 해당 분야의 學界 및 산업계와 보다 더 긴밀한 유대를 맺도록 주선해야 한다. 재외과학기술인이 우리의 근대화사업에 큰 몫을 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들로부터 그러한 寄與를 기대하여야 한다.

우리가 필요한 학문과 기술을 외국인을 통해서가 아니고 이미 선도적 자리를 굳힌 우리의 동족 學者로부터 傳受받는 것이 얼마나 멋스럽고 자랑스러운가! 그들이 20분 가량 발표하는 연구결과를 듣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학계나 산업계는 능동적으로 그들과 연계하여 워크숍 또는 세미나등을 통해서 深度있는 학술정보의 교환, 그리고 장차의 共同協力體系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들도 그래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확신한다.

끝으로 大會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배정이 있어야 한다. 수 천의 국내외 과학·기술의 高級頭腦를 한자리에 모이게 해서 펼치는 국가적 大行事이고 그 結果는 곧 국가산업발전에 큰 原動力이 되었고 그간 나라에 현저히 공헌했던 사실과, 앞으로도 이들에게 크게 의존해야 하고 在外學者 및 가족들에게 옳은 조국관을 갖게하는 계기가 된다는 깊은 뜻을 감안할 때 부족한 재정때문에 대회준비와 그 운영이 부실해진다면 대회 본래의 목적에 차질이 발생하며 과학·기술자들을 실망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學術大會처럼 國內의 同族科學技術人들이 모여 조국의 발전을 한가지 마음으로 기원하는 행사는 다른 나라에서 그 類를 찾을 수 없는 우리 特有的인 것이다. 이 행사가 지니는 뜻과 의의를 매년 되새기면서 끝내 우리의 寄與가 다음 세대에 빛이 되도록 發展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